

제 1 교시

문학 연계

출수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려울 듯하건마는
 그러나 죽은 제갈도 산 중달을 멀리쫓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을 갖추고 목숨을 이었으니
 취때 깨때 도적들을 잡시나마 저어할쏘냐
 비선(飛船)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칠중칠금*을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어서 항복하려무나
 항복한 자 안죽이는법 너를 굳이 섬멸하라
 우리 임금 성덕이 더불어 살자 하시니라
 태평천하에 요순 군민(君民) 되어 있어
 일월 광화(光華)는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전선(戰船) 타던 우리 몸도 어주(魚舟)에서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 있어
 상대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 박인로, 「선상탄」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화자는 병든 몸과 왜적의 침입이라는 절망적인 현실(부조화) 속에서, 과거 영웅들의 사례를 통해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왜적을 격퇴하여 모든 갈등이 사라진 '태평성대'(조화)를 이루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 ①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조화로운 세계를 향한 숭고한 투쟁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 ② 걱정/탄식의 정서.
- ③
- ④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문을 후리치고 반무(反武)*를 하온 뜻은
삼척검 둘러메고 진심보국 하려더니
한 일도 하움이 없으니 눈물겨워하노라

나라에 못잇을것은예밖에전혀없다
의관문물을 이대도록 더럽히고
이 원수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

도적오다뉘막으리아니와서알리로다
삼백이십 주*에 누구누구 힘써 할꼬
아무리 애고애고 한들 이 인심을 어이하리

베나아공부* 대답쌀쫄어요역대답
옷 벗은 적자(赤子)*들이 배고파 설워하네
원컨대 이 뜻 알으사 선혜 고루 하소서

공명과 부귀란 여사로 헤어 두고
낭묘상 대신네 진심국사 하시거나
이렁성저렁성 하다가 나중 어이 하실꼬

이라다웁으면제라다그르랴
두편이갈아서이싸움아니마네
성군이 준척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 이덕일, 「우국가」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화자는 외적을 물리치려던 개인적 이상이 좌절되고, 내부적으로는 책임감 없는 지도층과 고통받는 백성, 그리고 끝없는 당쟁으로 분열된 조국의 현실에 깊이 절망한다. 그는 이 모든 '부조화'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이, 어진 임금이 바로 서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명확한 '기준'이 되어주는 데 있음을 간절히 노래하고 있다.

- ①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공동체의 총체적 부조화에 대한 절망과, 이상적인 군주를 통해 조화로운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
- ② 걱정/탄식의 정서.
- ③
- ④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안의 실권을 장악한 시어머니의 조카 '일지'는, 정절 높은 며느리 '박씨'를 모해할 새로운 음모를 꾸민다. 그녀는 자신의 공범인 '차돌'을 통해, 아내를 잃고 새 여자를 찾던 난봉꾼 '봉돌'에게 박씨를 납치하도록 사주한다. 봉돌은 돌광대패를 동원해 박씨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틈을 타 박씨를 업어 달아날 계획을 세운다.

그날 밤, 박씨의 꿈에 금강산 신령이 나타나 내일 밤에 큰 옥을 당할 것이니 멀리 피신하라고 경고한다. 놀란 박씨가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자, 신령은 그곳에서도 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남편은 멀리 변방에 가 있고 집안은 흥흥한 가운데, 어린 딸 '채순'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던 박씨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통곡한다. 신령은 이를 만류하며 자신이 인도해 줄 것이라 약속하고 사라진다. 놀라 잠에서 깬 박씨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정 진사'에게 이 사실을 고하지만, 정 진사는 "꿈은 허상일 뿐"이라며, 젊은 여인이 정처 없이 집을 나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망신이라며 꾸짖는다. 결국 박씨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운명을 맞기로 하고 불안한 하루를 보낸다.

과연 해가 지자, 집 앞에서 돌광대패의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려온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박씨는 어린 딸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딸을 비자에게 업히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피하고자 서두른다. 바로 그 순간, 어젯밤 꿈에 나타났던 신령이 홀연히 나타나 그녀를 큰방으로 인도한다. 박씨가 딸을 업은 비자와 함께 이끌리듯 방에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풍경은 순식간에 낯선 암자로 변해 있었다. 놀란 박씨에게 한 여승이 다가와, 간밤에 산신령의 현몽을 받고 귀한 손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렸다고 말한다. 그곳은 충청도 괴산에서 팔백오십 리나 떨어진 금강산의 '무술암'이었다. 박씨는 신령의 도술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여승의 보살핌 아래 머무르게 된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봉돌은 밤이 깊어지자 박씨의 방으로 뛰어들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당황하여 밖으로 나온 그는, 담벼락에서 자신들의 '성공'을 구경하고 있던 공범 '일지'를 박씨로 착각하고 그대로 둘러업은 채 담을 넘어 쏜살같이 달아난다. 일지가 자신은 박씨가 아니라고 소리치자, 봉돌은 "박씨가 아니면 호박씨는 못 쓰느냐"며 막무가내로 그녀를 업고 하룻밤 만에 사백팔십 리를 달려 경기도 고양에 도착한다. 결국, 악의를 품었던 자가 스스로 꾸민 계략의 희생양이 되는 희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 작자 미상, 「정진사전」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사악한 인물들(일지, 봉돌)이 정절 높은 박씨를 납치하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금강산 신령이 꿈을 통해 이를 미리 경고한다. 박씨는 시아버지(정 진사)의 현실적인 반대로 인해 도망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지만, 결국 신령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순식간에 금강산의 암자로 피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한편, 박씨를 납치하려던 봉돌은 실수로 음모의 주동자인 일지를 납치해 달아나는 희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 ①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사회적 규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선한 의지를 가진 인물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통해 구원받고, 사악한 음모는 그 자체의 맹목성으로 인해 자멸하게 된다.
- ② 처첩 갈등 요소.
- ③
- ④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시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에 올라가니
 옥황상제는 반기시나 신선들이 꺼리도다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수임이 흥도다

뜻잡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상제는 웃으시되 신선들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백만억(百萬億) 창생(蒼生)의 일을 어느 겨를에 물으
 리

하늘이 이지러졌을 제 무슨 기술로 기워 내었는고
 백옥루(白玉樓) 중수할 제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 내었는고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 했더니 다 못하고서 왔도다
 - 윤선도, 「몽천요」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꿈속에서 세 차례나 옥황상제가 있는 천상 세계에 오른 화자는, 임금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신하들의 시기와 방해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으려던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좌절한다. 결국 그는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연에 귀의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깊은 우국충정과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 ① 현실 정치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된 우국충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세계와 백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충신의 고뇌와 한계 인식.
- ② 걱정/탄식의 정서.
- ③
- ④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슬프다 기민(飢民)들이 진휼(賑恤) 기별 들었는가
 당초에 피흔 곡식* 정비(精備)하여 받았더니
 진휼청모든취가각창(倉)의구멍을뚫고
 주야로 나들면서 섬섬이 까먹었네
 이번의 타낸 걸량(乞糧) 공각(空殼)으로 의포하에*
 적조(糶糶)* 맡은 저 두승(斗升)*아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만든 신 철목으로 삼겼거늘
 무단이 환면(換面)*하고 병공영사(憑公營私)* 하나스다
 엇그제 관홍량(寬洪量)*이 간탐(奸貪)코 협애(挾隘)하다
 변세(變世)는 변세(變世)로다 사람이 거북 되어
 진창의 들어앉아 모든 쥐를 살피더니
 본성(本性)이 쥐의 모습[鼠狀]이라 마침내 어이 되어
 창중(倉中) 진곡미를 다 주어 물어 가다
 여뀌* 잎을 굴을 삼고 모야(暮夜)의 장치(藏置)*하니
 석서가(碩鼠歌) 일어난들 교혈여부(狡穴餘腐)* 뉘 있으리
 실갓 쓴 소령감(小令監)은 진왕(秦王)의 성(姓)을 얻어*
 단좌소 다방부리 지휘 중의 넣어 두고
 주묵(朱墨)을 천농(擅弄)하며* 잔민(殘民)을 추박(椎剝)하니
 저 아표(餓殍) 월시(越視)하고* 사화재(私貨財) 도모한다
 진정사(賑政事) 맑게 하소 무실존명(無實存名)* 가이없다
 진감색(賑監色)의 진진 창*을 고비고비 다 채우니
 기민아 네 죽거라 사사(事事)로 살세(殺歲)로다
 이시절이러하니바랄것없어도야
 사월 남풍의 대맥황(大麥黃) 믿었더니
 황모(黃耗)*는 몹쓸 병이라 일시에 두루 퍼지니
 무상하다 시절이여 맥흉(麥凶)을 또 만나다
 수익심(水益深) 화익열(火益熱)을 과연이다 성훈(聖訓)이여
 인명이 철석(鐵石)인들 이려고 보전하라
 문노라 관인들이 이때가 어느 때나
 세미환상(稅米還上)* 각항(各項)받자 구미수(舊未收)*는 무슨
 일고
 아무리 식년(式年)인들 신호적(新戶籍) 무슨 일고
 가소로다 즉금 수단(脩單) 합몰절호(合沒絕戶)* 방시(方時)로
 다
 도탄의빠진백성어느겨를에눈을뜯꼬
 실같은이목숨이질김도질길씨고
 굶고 먹고 그리저리 천행으로 살아난들
 부모동생어디가고요절한자식더욱싫다
 눈에는피가나고가슴은불이난다
 망극하다 통곡이여 도처의 참혹하다
 이 몸이 황황(惶惶)하여 심불능정정(心不能定情)*하니
 이 살세 살아나서 이 낙세(樂歲) 불동말동

- 작자 미상, 「임계탄」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진휼곡은 탐관오리들에 의해 곳곳에서 착복되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간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보리 농사마저 흉년이 들고, 관리들은 가혹한 세금 징수를 멈추지 않아 온 집안이 몰살당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화자는 굶주림 속에서 가족을 잃고 흩어진 개인의 참혹한 슬픔과 분노를 토로하며, 과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 좋은 시절을 볼 수 있을지 절망적으로 한탄한다.

- ① 탐관오리의 수탈과 거둬지는 재앙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붕괴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겪는 극한의 고통과 희망마저 상실한 처절한 절망.
- ② 걱정/탄식의 정서.
- ③
- ④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관과초면이라서로인사다한후에본관이하는말이
 김교리이번유배죄없이오는줄은
 북관수령아는바요온백성이올었으니
 조금도슬퍼말고나와함께노십시다
 악공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그러나이내몸이유배온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 풍류 무엇이냐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경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오고두셋오니육십명되는구나
 책끼고와배움청하고글제내어골라달라부탁하네
 북관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일을생각하면남가르칠공부없어
 아무리사양해도벗어날길전혀없어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 보내도다
 고향생각나면시를짓고심심하면글외우니
 변방의외로운몸이나시와술에마음붙여
 문밖으로안나가고편히편히날보내다
 가을바람에놀라깨니변방산에서리왔네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개가죽 상하의는 상놈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네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실낱같은이내목숨한달반을보존했네
 (중략)
 이몸이이른곳이신선의동굴이라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에 자취 남겨
 바람에부친듯이이광정보는구나
 연적봉 지난 후에 선연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 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 있고
 생활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매향은술잔들고만장운한곡조부르고
 군산월 앓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다
 오동나무 거문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곱거니와
 가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너의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미인앞에영웅열사없단말은역사책에도있느니라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야 큰소리치라
 본것이큰병이요안본것이약일런가
 이천 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잘한것이모두다네덕이로다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다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대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하늘끝나그네가이럴줄알았던가
 흥 다하여 돌아와서 수노 불러 분부하되
 나칠보산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선비만데리고서시짓고술마시니
 청산은 글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그림되어종이위에단청된다
 군산월고운모습꿈에서깁듯하다

- 김진형, 「북천가」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억울하게 북관으로 유배 온 화자는, 처음에는 외부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학문과 교육에 몰두하며 이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한다. 그러나 관장의 주선으로 칠보산을 유람하던 중, 아름다운 자연과 특히 기생들의 모습에 강렬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내적 갈등을 겪는다. 유람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반성하고 다시 기생을 멀리한 채, 선비들과 어울려 자연과 학문을 즐기며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정신적 조화의 경지에 이른다.

- ① 억울한 유배라는 부조화의 현실 속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감성적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이성적 성찰과 자기 통제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더 높은 정신적 조화를 추구하는 사대부의 내면적 갈등과 극복 과정.
- ② 북방으로의 임무.
- ③
- ④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鏡城)이 접경인데
치병(治兵) 목민(牧民)*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
서생의 일은 한묵(翰墨)*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
임금께 절을 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밖 국경에 이한 몸 다 잊었어라
홍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 갈아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 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이고
높고 험한 철령을 험하다 말 전 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겨 보면 평지인가 여기 노라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오 대궐이 가려졌도다
안변 북쪽은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러니
비린내 노린내 일소*하여 천리 밖 몰아내니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을 초목이 다 알도다
용흥강 건너 들어 정평 부잠간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앉아
옥저* 땅 산하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중략)

군영에 일이 없고 막사 한가한 때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려
꽃 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춘풍이 화창하여 맑은 경치 부쳐내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 되어 있고
구름인양 눈인양 파도는 하늘을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가니
은빛 산이 걷히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비단같은 잔디에 백운같은 천막치고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무리지은 미녀들 좌우에 벌여있어
아쟁이며 비파를 타거니 켜거니
아리따운 여인들 추거니 부르거니
봄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없으니
한바탕 봄놀이 싫증남 직하다마는
고향을 바라보니 험한 고개가려 있고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육진(六鎭)이로다
태평 시절 적객은 도처에 군은(君恩)이로되
대궐에서 멀어진 몸 뉘아니 슬피하며
대궐로 돌아갈 일 어떻게 기약할까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 마는
시운(時運)의 탓이런가 운명에 매였는가
진대* 백수(白首)에 세월이 쉬이 가니
초택 청빈*은 원망도 많은 지고

이잔가득 부어 이시름 잊자 하니
동해를 다 퍼낸들 내시름 어이 할꼬
어부이 말 듣고 낚싯대 돌려메고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니
세상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갖가지 세상살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로다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오며 가며 하는구나

- 조우인, 「출새곡」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북방의 관리로 부임하게 된 화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공적인 임무에 충실하려는 이성적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임지에서의 화려한 봄놀이 속에서 문득 고향과 임금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에 휩싸인다. 이러한 고뇌의 끝에서, 세속을 초월하여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어부'의 모습을 통해, 모든 시름을 잊고 자연에 귀의하는 탈속적인 삶의 경지를 동경하게 된다.

- ① 국경 지역의 관리로서 느끼는 공적 책임감과, 유배객으로서 느끼는 개인적 고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세속적 시름을 벗어나 자연에 귀의하는 탈속적 삶을 지향함.
- ② 북방으로의 임무.
- ③
- ④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온성이 몇 리턴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사람 숨씨 아냐 관가 술이 분명하네
그 곡절 모를쏘냐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
니

아는 체 무엇 하리 담뱃대 돌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甘紅露)와 다름없네
속 깊도다 이 부사(府使)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부터 종성까지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버선 행전(行纏) 다 적시고 a동태가 되었구나
이 물골 이 거동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못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남여(藍輿)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을 드리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저 양반이 어사신가
어사또 물골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갓은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 땀시 더욱 좋다 짚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범일러니
보니까 b미역이라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위의를 갖춘 후에 좌수 이방 잡아들여*
몹시 치며 형추하니 정강이가 찢어지데 큰칼 쓰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c그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치 되었더라
아까는 조롱터니 지금은 떠는구나
네 거동 그만 보고 회령으로 가오리라
회령 자고 어디 갈꼬 부령으로 가오리라
고풍산(古豊山) 어두울 때 원(院)집으로 들어가니
밤중에 숨이 막혀 놀라 깨서 일어나니
온 방에 연기가 가득 병풍에 불이 붙데*
저고리 찾아보니 개자추가 되었더라 하마터면 화장될네 중의
신세 면했구나
남의 옷 얻어 입고 부령으로 가오리라 부령길이 무섭더라 불
시에 지진 나서 멀쩡한 평지가 도처에서 꺼지니
그 속에 한번 들면 다시 날 수 있을쏘냐
(중략)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성대하나 하나라도 살로 가랴 여러 날 추위에 떨다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니 먹느니 냉수로다
그 누가 어사 벼슬 좋다고 하였던가*
봉고과출(封庫罷黜) 쾌한 일인가 형문 곤장 차마 하랴
못할 일 억지로 하니 제 심정 나빠지고*
낙송자는 원망하며 몹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찌 알리
그 말을 끝이들네 고맙단 이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

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어찌 다 좋으리 부끄러운 일 없으면
무슨 상관 있겠는가 상관할 일 있더라
내 애씨 다니면서 백성 고통 자세히 알아 낱알이 보고하니
조정에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고여덟 시행을 아니 하면
그 아니 허망한가 이 일이 상관있다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라*
위로하여 주시면 부탕도화 하오리라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
양이 수천 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쏘냐
형편이 하릴없다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쏘냐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내가 차마 가겠는가 머물
며 위로한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고통 염려하셔 날 보내
어 알려 하시니 내 가서 아뢰려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비노니 햇빛 아래 백배(百拜)하고 비노니**
봄기운이 포택할 때 음곡부터 먼저 하면
먼 곳의 저 사람들 거의 거의 도모하리
반 넘게 늙은 몸이 임금 은혜 아니시면
육천오백 리 먼 길을 탈 없이 왔겠는가
아이야 잔 씻어라 천황씨(天皇氏) 일만 팔천
지황씨(地皇氏) 일만 팔천 합하여 삼만 육천 세를
우리 님께 헌수하자

- 구강, 「복새곡」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함경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화자는, 임지로 가는 험난한 여
정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어사의 위엄을 잃기도 하지
만, 이내 탐관오리를 처벌하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그
러나 그는 죄인을 벌하고 원망을 사는 어사 직무의 비정함
에 깊은 인간적인 고뇌를 느낀다. 이 모든 내적 갈등은, 임
금의 은혜조차 닿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
하고 구제하겠다는 윤리적 책임감으로 승화된다. 화자는 마
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공을 임금에게 돌리며, 임금의 은혜가
가장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먼저 닿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
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① 암행어사로서 겪는 개인적 고난과 내적 갈등을, 고통받는 백
성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통해 숭고한 위민(爲民) 정신과 충
의(忠義)로 승화시키는 과정.
- ② 북방으로의 임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이미백구잇고백구도나를잇네
 둘이 서로 잇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꼬

붉은잎산에가득빈강에쓸쓸할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맛이랴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려문*
 네귀를씻은샘에내소는못먹이리
 공명(功名)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 보세

옥계산흐르는물뭇이뤄달가두고
 맑으면갓을씻고흐리면발을씻네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淸濁)을 모르래라
 - 이별, 「장육당육가」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화자는 자연 속에서 백구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누리며, 세속의 이익을 좇는 이들과 자신을 구분한다. 그는 공명과 같은 낡은 세속적 가치를 벗어난 자유로움을 노래하고, 맑음과 흐림이 공존하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며 그에 순응하는 초연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 ①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 속에서, 세상의 혼탁함에 얽매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초연한 삶의 즐거움.
- ② 자연 친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계상 반구정(伴鷗亭)에 극목소쇄* 풍경일다
 무심한 백구들은 자거자래* 무삼 일고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모를쏘나

백로주 돌아들어 반구정을 돌아가니
 ㄷ 장면은 일공한데* 호월(皓月)*은 천리로다
 아이야 풍광이 이러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연하*로 집을 삼고 구로(鷗鷺)*로 벗을 삼아
 ㄹ 팔 베고 물 마시고 반구정에 누웠으니
 세상의 부귀공명은 현 신인가 하노라

맑으나 맑은 창랑파(滄浪波)에 태을 연엽* 띄웠는데
 탁영가* 한 곡조에 잠든 날 깨우거든
 유자(孺子)야 청탁자취*를 나는 몰라 하노라

청산은 만고청(萬古靑)이요 유수는 주야류(晝夜流)라
 산청청 수류류 그지도 없을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산수같이 하오리라
 - 신지, 「영언십이장」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화자는 자연 속에서 백구와 벗하며 풍류를 즐기고, 속세의 부귀공명을 낡은 신처럼 여기며 완전히 벗어난다. 그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조차 초월한 탈속의 경지를 노래하며, 마지막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을 본받아 자신 또한 그 도리를 좇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 ① 세속적 가치를 완전히 벗어나 자연과 합일하는 즐거움과, 나아가 영원불변한 자연의 법칙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구도자적 다짐.
- ② 자연 친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와룡산(臥龍山) 내린 아래 반무당(半畝塘) 새로 여니
 티 없는 거울에 산영(山影)이 잠겼구나
 이 내의 경영(經營)하는 뜻은 그를 보려 하노라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풍월(風月) 연하(煙霞)는 좌우로 오는고야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綠陰)이 난다*
 금수(錦繡) 추산(秋山)에 밝은 달이 더욱 좋다*
 하물며 백설(白雪) 창송(蒼松)이야 일러 무엇하리오

도원(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가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육십 년(六十年)을 다 지낸 후에 또 두 해를 지냈더니
 오늘날 봄을 보니 또 한 해 또 오도다
 매일에 또 한 해 또 한 해 하면 천백 년(千百年)에 이르리로다

젊은 벗님네야 늙은이 웃지 마라 젊기는 잠깐 사이요 늙기사
 더 쉬우니 너희도 나 같으면 또 웃을 이 있으리라

칠십 년(七十年)을 다 지낸 후에 또 팔 년(八年)에 다다르니
 한가한 이 몸이 수역 중(壽域中)에 늙어 간다
 오늘날 또 봄을 만나 격양가(擊壤歌)를 하노라

늙기는 다 서럽거니와 오래 살기 어려우니
 진실로 오래 살면 늙을수록 더 놀리라
 우리는 낙이망우(樂而忘憂)하야 늙는 줄을 모르리라
 - 김득연, 「산중잡곡」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화자는 자연 속에 '반무당'이라는 이상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무릉도원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는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이를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가 쌓여 영원에 이른다는 역설적 상상을 하며 젊은이들을 훈계한다. 마침내 그는 늙음이란 서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았기에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 선언하며, 즐거움 속에서 근심을 잊는 '낙이망우'의 달관적 경지를 노래한다.

- 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즐기며, 나아가 '늙음'이라는 인간적 한계마저도 즐거움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이고 달관적인 인생관.

하이브리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회하고 생각하며 참된 자취 다 찾으니 탁영대 연못은 고금
없이 맑다마는 어지러운 속세에 사람들이 다투니
이리 맑은 연못에 갇힌 씻을 줄 그 뉘 알리.
사자암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
빛을 머금은 구슬은 어제인 듯하다마는
봉황 떠난 빈산에 두견만 낮에 운다.
도화동 내린 물이 밤낮없이 복숭아꽃 띄워 오니 천태인가 무
릉인가, 이 땅이 어디인가.

신선 자취 아득하니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질지도 않은 몸이 무슨 이치 알까마는
산이 좋아 갈 길 잊고 기암에 다시 기대
원근의 내와 들판 경치를 살펴보니,
울긋불긋 꽃 빛깔은 비단빛이 되어 있고
수많은 꽃향기 골바람에 날려오고
산사의 종소리 구름 밖에 들리도다.
이러한 풍경을 명문장가의 붓인들 다 써내기 쉽겠는가. 눈앞
의 풍경이 흥취를 더하는 듯
이리저리 거닐며 짐짓 더디 돌아와서
서쪽 산을 바라보니 저녁 해가 다 지는도다.
독락당 다시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의 풍채를 친히 만나 뵈는 듯.

*
갱장에 뚜렷하여 애달피 탄식하며
당시에 하시던 일 다시금 생각하니,
밝은 창가 책상에서 세상 근심 잊으신 채 성현의 책에 뜻을
두어 공들인 결과로 배우고 가르쳐서 유교를 밝히시니
동방의 군자는 이뿐인가 하노라.
더구나 효제를 근본 삼고 충성을 펼쳐 내어
조정에 나아가 직설의 몸이 되어

*
당우성시를 이룰까 바라다가
시대 운수 불행하여 어진 이를 멀리하니
듣고 보는 사람들, 심산공곡인들 뉘 아니 슬퍼하리. 유배 생
활 칠 년에 하늘의 해 못 보시고
문 닫고 성찰하여 도덕만 닦으시니

*
사불승정이라, 공론이 절로 일어 사람마다 도덕을 숭상할 줄
알아서 유배지 사람들도 받은 교화 다 못 잊어 궁벽한 시골 땅
에 사당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은 더욱 일러 무엇하리.
- 박인로, 「독락당(獨樂堂)」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화자는 회재 이언적이 머물렀던 '독락당'을 찾아, 그 주변
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속세의 혼탁함을 비판한
다. 그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 깃든 이언적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과,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다 좌절되었던 숭고한 삶의 자
취를 떠올리며 깊은 흠모의 정을 느낀다. 특히, 억울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수양을 통해
덕을 쌓아, 마침내 주변 사람들까지 교화시킨 이언적의 정신
을 찬양하며, 그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부조리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숭고한
삶을 통해 위대한 정신적 조화를 이루어낸 옛 성현(이언적)의
삶과 덕을 추모하고 본받으려는 의지.
- ② 하이브리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록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르뎠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지내야
 나는 발을 열구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훔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지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 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짜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지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지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 땀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 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지내」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식민지 시대, 유랑민들이 모여드는 북간도의 어느 술집에서, 함경도 출신의 화자는 고향을 떠나온 '전라도 가지내'를 만난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직감하고, 그녀의 아픈 과거를 위로하며 깊은 연민과 동질감을 느낀다. 그는 잠시나마 그녀의 사투리를 흉내 내어, 그녀가 잃어버렸던 고향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 짧은 교감의 순간이 끝나면, 그는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갈 자신의 암울한 운명을 예감하지만, 그 하룻밤의 인간적인 온기를 통해 깊은 위로를 얻는다.

- ① 암울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두 이방인이, 서로의 상처를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며 나누는 애뜻한 인간적 연대.
- ② 시대적 배경: 유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멧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 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기 골짜기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이용악, 「오랑캐꽃」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화자는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그에 얽힌 오랑캐들의 비극적인 패배의 역사를 떠올린다. 그러나 화자는 이 꽃이 실제로는 오랑캐의 역사나 문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부당하게 ‘오랑캐’라는 이름의 굴레를 쓰게 된 이 연약한 꽃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 마침내 그는 햇빛을 막아주며, 억눌러왔을 슬픔을 마음껏 터뜨리라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넨다.

- ① 역사적 폭력에 의해 부당한 이름을 갖게 된 연약한 존재(오랑캐꽃)에 대한 깊은 연민과, 그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려는 따뜻한 공감의 정신.
- ② 시대적 배경: 유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서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어!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 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묻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피로운 행려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알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너무나, 빼 없는 마음으로
오-너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 오장환, 「여수」

요약.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보기> 참고.

<보 기>

나그네길 위에서 깊은 시름(여수)에 빠진 화자는,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과거의 추억으로 도피하지만, 그 추억마저 초라하고 고달픈 뿐임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나약한 감성(노스탤지어)마저 혐오하게 되고, 좁은 껍질 속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빼 없는 마음’이라 자조하며 격렬하게 자책한다.

- 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희망과 믿음의 근거도 찾지 못한 채, 과거로의 도피마저 좌절되고, 결국 자기혐오에 빠져드는 지식인의 극한의 무력감과 절망.
- ② 시대적 배경: 유랑